



제비다방과 예술가들의 질주 Bar Jebi and Flight of Art © 문화역서울 284



백현진 작 '방 Room' © 문화역서울 284

옛날 다방서 커피향에 취해볼까

광주 다방문화와 역사 · 광주 커피맛, 음악과 함께 음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1일부터 특별순회전 '커피사회'

전시를 관람하며 커피까지 즐기고, 음악다방의 음악 DJ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맛과 향기 속에 담겨진 역사와 문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커피를 통한 사회 문화 읽기라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커피와 함께 근현대한국문화사와 현대미술을 향유하는 특별순회전 '커피사회'를 문화장 조원 복합3,4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 겨울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이 기획하고 근대건축물인 옛 서울역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 전시의 순회로 진행된다. 근현대의 고즈넉함을 보여줬던 공간에서의 전시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한 공간에 지어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의 지역 커피들을 맛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있는 광주에서 운영된 최초의 다방은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쓰마베'였다. 이곳

을 시작으로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즐겨 찾던 다방들이 늘어났다. 특히 총장로 우체국 앞 다방을 지칭하던 '우다방(郵茶房)'을 지금도 많은 광주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1950년대 들어 다방은 문인들, 화가들, 언론인들이 다방을 거점 삼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특히 광주의 아카데미다방, 아폴로다방, 화신다방 등은 예술가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광주의 다방 문화와 역사를 담았다.

전시는 크게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된다. 문학, 미술, 철학 등 문화예술 전반의 교류에 영향을 미친 커피의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읽어가는 '커피의 시대', 커피에 대한 동시대의

형적 공간을 보여주는 'ACC 유스 클럽', 관람객이 커피를 나누는 공간으로 192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대의 맛'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지역의 참여 카페들이 개발한 근대 메뉴의 커피를 맛보게 되며 대나무정원으로 난 큰 창을 마주하고 앉아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도심 속의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음악을 듣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즐길 수 있는 음악다방의 추억을 만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주말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나른한 봄, 잠시 일상에 벗어나 옛날 다방에서 커피의 향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 /이연수 기자

우리나라 최초 '세계인' 장보고

창작판소리연구원, 창작판소리 서울-광주-완도 무대
임진택 명창 재해석...특유 해학과 풍자로 재미 더해

창작판소리연구원이 오는 17일 서울 남산국악당을 시작으로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공연을 진행한다. 26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특별공연을 있고, 5월 3일 오후 6시에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에서 축제공연으로 선보인다.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는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양 무역을 석권한 세계인 장보고의 기상을 담아 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다.

창작판소리로 늘 새롭게 역사인 물을 만나온 임진택 명창이 이번에는 해상왕 장보고 이야기를 '세계인 장보고'로 새롭게 해석해 평생 숙원사업인 창작판소리 열두바탕 중 다섯바탕에 자리매김한다.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서 태어난 신라인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용맹을 떨치고 귀국해 청해진을 설치, 해적을 소탕했다. 당나라·신라·일본 3국의 해상교역을 전개한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이며 한·중·일 3개국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동안 장보고 이야기는 소설, 다큐, TV드라마 등 여러 장르의 예술작품으로 형성되었다. 역사학자들은 장보고를 '해상왕'으로, 작가 최인호는 장보고를 '해신(海神)'으로 해석했던 바, 이번 창작판소리는 장보고를



임진택 명창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란 관점으로 해석해낸다.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철저한 고증에 탁월한 해석을 더해 임진택 특유의 뛰어난 해학과 풍자로 재미를 더했다.

완도군 지원으로 제작되어 지난 2월 말 완도에서 열린 시연회에서는 완성도 높은 사실과 뛰어난 작창, 관중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서울과 광주 공연은 선착순 1인 2매 문자예약, 완도 공연은 야외 공연으로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임진택 명창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연극과 탈춤을 결합해 마당극을 창출한 마당극의 창시자이자 창작판소리의 독보적 존재다.

고정권진 명창을 사사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정기 이수자로 마당극 '밥', 서사극 '직녀에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등을 연출했다. 현재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연수 기자



창작판소리연구원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광주 공연을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17~2018년도 성과·사회적 책임 의지 담아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문화원)이 2017-18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고객·협력사·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경영 활동 내용 공유를 목적으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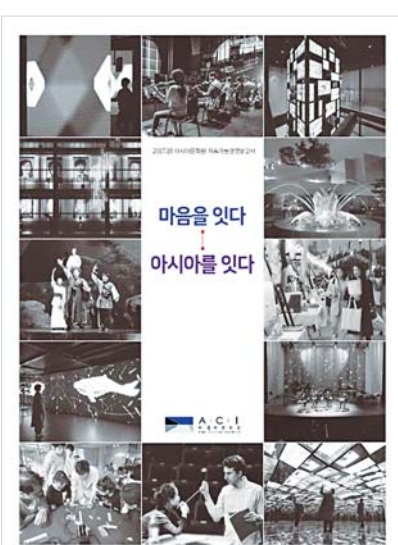
26000 기준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 2015년 아시아문화원 설립 이후 처음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보고서를 통해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선순환 구조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아시아문화원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이 확립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기관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에 지속가능경영 문화가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시아문화원 홈페이지(www.aci-k.kr)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창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8438-3819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 720-1080-82
편집국 : jndn@chol.com /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743-4200 / 팩스 061) 743-4202 / endlessha@hanmail.net
서부권본부 대표전화 061) 285-9816 / 팩스 061) 285-9818 / jmsb1000@naver.com